

목차_ C/O/N/T/E/N/T/S

▶ ▶ 2007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워크숍

[Session1] 환경교육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For the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Asia)
_ 한일 대표 사례발표 및 민관협력방안 토론

환경운동연합 (사)환경교육센터는 2005년 6월,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창립과 함께,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관협력 환경교육 파트너십 연구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은 2007년 12월 4~5일에 진행된 「환경교육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2005년 진행된 「지역별 환경교육센터 건립의 의미와 과제」 워크숍과 2005년과 2006년에 진행된 「1~2기 센터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서 수행된 민관협력 센터건립 워크숍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2007 민간환경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기조발제] 한국 환경교육센터 현황과 민관 협력방안 (Present Status of 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_ 환경연합 환경교육네트워크 · 차수철 ... 9쪽(한), 25쪽(영)
- [국외사례1] 환경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구축 - "환경학습도시 니시노미야시" 사례_ LEAF (Building Communities through Environmental Learning - A Case of "Environmental Learning City, Nishinomiya")_ LEAF · 오가와 ... 43쪽(한), 47쪽(영)
- [국내사례2] 강화갯벌센터의 운영사례 (An example of operating the Ganghwa Tideland Center of KFEM)_ 강화갯벌센터 · 장동용 ... 59쪽(한), 67쪽(영)
- ※ [워크숍 스케치(정리)] “환경교육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워크숍 ... 78쪽

sake-making relies on this natural blessing of quality water.

As mentioned above, Nishinomiya is rich in water resources. We have springs, rivers, waterfalls, ponds, lakes, the Bay and the coastline. Such a favourable condition is hard to find in any urban city in Japan.

7. Environmental Learning City

Since 1992, Nishinomiya City has inaugurated an environmental learning project "the Earth Watching Club, Nishinomiya (EWC)" targeting all elementary school students (current enrolment: 25,500 students) in the city. This community-based project for children served as the model for the current national Junior Eco-Club initiative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The EWC project has introduced the Eco-Card system since 1998. The system encourages community members to support children who conduct "Eco-Actions" on a daily basis. In 2003, the City declared as an Environmental Learning City, first of its kind in Japan, to further progress our efforts to promote sustainable community building through environmental learning.

"Nishi-no-Miya," Capital of the West

As you could see, every feature of our city is unique, and Nishinomiya's multifaceted character makes our city stand literally as "the Capital of the West."

Our current progressive endeavours toward our ideals expressed in our city declarations for promotion of quality education, quality residence, and environmental learning can only bear fruits as joint efforts in partnership among citizens,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Sustainable community building is the way to go for our prospective common future to be shared and enjoyed by our next generation.

강화갯벌센터의 운영사례

장동용_ 환경운동연합 강화갯벌센터 사무국장

I. 강화갯벌센터 설립과정과 평가

1. 설립배경 및 개관일

- 설립배경_ 1999년 환경운동연합과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습지보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의 지자체인 인천시, 강화군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 세미나, 심포지엄, 영국·독일 갯벌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01년 4월 4일, 인천시, 강화군, 환경운동연합과 강화갯벌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강화갯벌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 센터의 개관일 : 2005.6.8

2. 관리 및 재정마련방안

1) 관리 및 운영 주체

- 센터의 관리 및 운영주체
 - 시설관리 : 강화군(GO)
 - 운영: 환경운동연합(NGO)
- 센터의 운영방식
 - 강화군, 환경운동연합과의 협력/파트너십에 의한 운영.
 - 강화군 문화관광과,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 강화갯벌센터와의 공동 협력

2) 센터의 목표, 사명, 비전

- 센터의 목표.
 - ① 강화도에 갯벌센터를 건립하여, 갯벌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

- ② 갯벌의 희소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환경친화적 관광 모델 수립
- ③ 갯벌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

· 센터의 사명

- ① 인근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관과 민의 원활한 교류)
- ② 특성화된 국내·외 갯벌 체험 및 교육의 장
- ③ 갯벌과 관련된 환경친화적인 상품개발 및 탐방객 등 지역 경제 활성화
- ④ 갯벌 및 자연생태문화 관련 연구 및 생태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의 장

· 센터의 비전

갯벌센터는 센터 건물 뿐 아니라 그 주변 갯벌을 포함하여 철새 도래지의 탐조대와 갯벌 주변의 지도식(Guided)과 자기학습식(Self-Guided) 학습장을 마련함으로써 해서 환경친화적인 갯벌 연구교육문화센터의 개념을 지닌다.

- ① 주변 갯벌의 학습장 및 철새 도래지 조성
- ② 갯벌생태교육 프로그램 수립
- ③ 교육센터 건물 건립 개념
 - 센터의 탐방객 현황
 - 월간 평균 탐방객: 1,000 명
 - 연간 평균 탐방객: 13,000 명

3) 사업추진경과(환경운동연합)

- 1999. 7 영국대사관 습지보전 프로젝트 구체 진행
- 10. 13 제1차 영국습지보전 사례 현장방문 오리엔테이션(영국대사관)
- 12. 24 국고보조금 확정(강화군청)
- 2000. 2.27 ~ 29 한·영 습지보전 심포지엄 개최 및 한국습지 강화도 갯벌 현장 방문
 - (공동주최: 환경운동연합, 주한영국대사관 / 장소: 주한영국대사관)
- 3.15 강화남단갯벌 관광지조성사업계획수립(강화군청)
- 6.20 강화갯벌교육센터 건립관련 강화군청 면담(강화군청)
- 7.14 강화도 갯벌보전을 위한 갯벌교육센터 건립 관련 브리핑(강화군청)

- 8.16 ~ 20 영국 습지보전 사례 및 교육센터 현장시찰
 - (인천시장, 강화군수,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참가)
- 10. ~ 12. 강화갯벌센터 건립 부지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수차례 진행)
- 2001. 2.2 ~ 10. 강화갯벌센터 실무자 영국 습지보전 사례 및 교육센터 현장 시찰
 - (인천시장, 강화군수, 환경운동연합, 전문가 등 참가)
- 3.8 ~ 14. 강화갯벌센터 건립 관련 영국 WWT 전문가 한국방문
 - (강화갯벌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현장시찰 및 회의 집중 진행)
- 4. 4 강화갯벌센터 건립사업 공동추진 협약체결(인천시, 강화군, 환경운동연합)
- 10.13 독일 갯벌국립공원관리청 전문가와 강화도 갯벌의 보전과 갯벌센터 건립사업 관련 회의
- 2. ~ 12. 강화갯벌센터 부지 선정 및 건립 관련 회의 (수차례 진행)
- 2002. 7.30 강화갯벌센터 현장 설명회
- 2003. 1 ~ 12. 강화갯벌센터 설계회의(수차례), 사전환경성검토 진행 및 협의
 - 4. 1 공공시설입지승인(5,254㎡)
 - 5. 14 건축허가 (연면적 704.43㎡, 지하1층, 지상2층, 철골조)
 - 11.14 강화갯벌센터 현장간담회 개최(강화군수, 강화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갯벌센터 건립 실무추진위원회)
- 2004. 1. ~ 12. 강화갯벌센터 건립 실무협의회 개최(수차례) - 외부,내부,조경 등
 - 1. ~ 12. 강화갯벌센터 교육프로그램 마련 회의 개최(수차례)
- 2005. 1. ~ 3. 강화갯벌센터 내부인테리어 및 교육시설 시공, 운영계획 및 조례안 제정
 - 5. 강화군, 환경연합 간 위탁 계약 체결
 - 6. 8 강화갯벌센터 개관

4) 강화갯벌센터 건립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주요평가 사항

- 향후 이와 같은 센터 건립 사업시 본 사업만을 위한 주체의 확보가 사업 초기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여느 사업과 같이 담당자 형태의 주체는 한계가 매우 크다.
- 건물설계, 내부 인테리어 설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이 사업의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이고 매우 세부적으로 마련된 후 진행해야 한다.
- 사업의 시작에서 설계, 시공, 마무리까지 최대한 각계의 전문가, 환경활동가, 주민

등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II. 강화갯벌 및 갯벌센터 소개, 운영 및 평가

1. 강화갯벌센터 일반 현황

1) 주요한 습지유형

- 갯벌 및 하구 갯벌

2) 강화갯벌센터 소개

- 건물개요
 - － 부지면적: 12,873㎡(공공시설입지 5,254㎡)
 - － 건물개요: 연면적 704.43㎡, 지하1층, 지상2층, 철골조
- 갯벌면적
 - － 강화 갯벌 : 353km²
 - － 강화남단갯벌:(여차리-동막리-검검리): 90km²
- 주요시설
 - 강의실, 연구실, 전시홀, 자료실, 전망대, 탐방로, 주차장 등
- 주요전시물
 - 강화남단갯벌 모형, 저어새 모형, 갯벌디오라마, 한국의 조개 패각전시 등

3) 센터교육의 갯대중 및 특징

- 조류: 저어새 및 노랑부리백로
- 갯벌생물: 백합, 범게
- 다른 지역과 강화갯벌센터(강화남단갯벌)차별화되는 주요한 특징
 - 한강 하구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하구 갯벌로서 국내에서 현존하는 하구 중에서 가장 자연성이 높은 갯벌이며, 대단위 저서동물 군집이 있고 다양한 소규모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높음
 - 물새의 동아시아 - 호주 이동경로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에 위치하여, 섬금류인 도요물떼새류가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면서 번식 및 월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거나 서식지로 이용하는 장소

중의 하나임.

- 두루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멸종위기 국제보호조의 서식지, 중간기착지 및 월동지

2.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 및 대중인식증진활동(이하 CEPA 활동)”의 강화갯벌센터 철학

갯벌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모두를 위한 곳이다. 갯벌이 있기에 날아다니는, 헤엄치는, 옆으로 기어 다니는 다양한 종류의 바다생물이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든다.

그렇게 형성된 갯벌생태계는 인간이 즐겨 찾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갯벌의 생태적,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인 역할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된다.

이는 반드시 정형화된 시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갯벌의 자연 전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갯벌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 프로그램 및 주요 전시

1) 기본적 안내프로그램

- － 강화갯벌의 생물과 조류: 영상관람
- － 저어새의 생태: 모형 및 전시판
- － 갯벌의 유형: 전시판
- － 갯벌의 생태: 수족관 및 야외관찰, 전시판

2) 주요인식프로그램 대상

- － 유아, 청소년

3) 전시물 교체 주기

- － 비상시적
- － 교육성과물로 전시 교체

4) 학교 및 대학 대상 프로그램

갯벌센터는 1일3시간, 1일6시간, 1박2일의 프로그램이 있음

5) 전문/심화 프로그램

2007년 환경연합 습지센터와 더불어 저어새의 생태학교, 지역민 대상으로

한 갯벌안내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6) 인적구성

- 상근직원: 5명(일반관리직2, 환경연합2, 일반안내1)
- 자원활동그룹: 강화도시민연대 자원그룹 9명, 강화도문화해설사그룹:34명, “갯벌학교” 수료자: 30명
- 업무협력그룹: 환경연합 습지위원회, 환경연합 습지센터, 강화도시민연대

4. 강화갯벌센터위탁운영상의 민·관 협력 평가

1) 행정기관(강화군)과 환경연합과의 협의 체계 부재 및 위탁상 발생하는 문제점

- 강화갯벌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갯벌센터 개관이전까지는 실무자 몇 사람이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진행되어 왔으나 강화군 실무자의 회의록 미작성 및 실행 불이행 등으로 불신의 벽이 높았다.
- 강화갯벌센터 개관 후 환경연합과의 계약 체결한 계약서와 제정된 조례상에 운영 위원회의 구성, 운영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실질적으로 강화갯벌센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회의, 결정시스템 누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형식상의 논의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또한 협약서 내에는 강화갯벌센터 개관 시 모든 부분이 환경연합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환경연합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관계로 프로그램, 교육에 한정되어 위탁받은 것이 지금으로선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외로는

- 정례화된 회의 미개최
- 잦은 담당공무원의 교체
- 갯벌센터 운영 관련 예산 미협의를
- 수익적 관점에서의 강화갯벌센터
- 갯벌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미지원 등이다.

2) 중앙환경연합과 강화갯벌센터 간의 역할 및 업무공조체제 미흡

- 강화갯벌센터를 건립 운영하기 위한 초기 중앙환경연합의 제안 당시의 의지 및 위상이 현재는 많은 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다(내용상, 실무자, 갯벌센터의 위상)

- 강화갯벌센터 개관 이전까지도 중앙환경연합의 중앙집행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중앙실무 운영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심도있게 검토, 논의되지 못하고 1인의 실무자 역할로 그간의 사업들을 진행해 온 점은 크게 반성될 부분이다.
- 이는 강화갯벌센터가 중앙실무자 및 위원들 전체에게 강화갯벌센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지 못하여 파생된 현재의 강화갯벌센터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건립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5%분담금의 문제는 환경연합 전체가 어떻게 마련되고 지원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했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 개관 운영 후 강화갯벌센터에 배치된 실무자의 역할도 강화갯벌센터 건립과정의 그간의 경과 문제점, 계약 후 강화군과의 실무적인 마찰, 활동여건의 제한, 운신의 폭 제한 등 여러 가지 기타의 이유로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독립적인 환경연합의 강화갯벌센터의 운영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이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남는다.

3) 강화갯벌센터 환경연합 활동가 근무상의 문제점

- 위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활동 및 시간상의 제약 조건이 너무 많고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활동가로서의 활동보다는 단순 사무직을 수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년 이상을 환경연합에서 활동한 활동가가 근무조건 및 그 외의 이유로 무기력한 결과를 낳은 점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강화군, 중앙환경연합, 강화갯벌센터 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개인적인 사유 등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된 점이다.

III. 결어

갯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쟁은 연안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매년 갯벌 지역을 찾는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심과는 달리 갯벌탐구, 자연탐사, 생태관광 등으로 포장한 인간의 과도한 갯벌 침입은 수 천 년 전부터 자연 그대로 유지해 온 연안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 기능과 구실을 완전히 말살하게 하여 쓸모없게 만들기도 하

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교감 부족과 환경의식 부재로 인하여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오래 못 가서 생태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강화도 장화리 갯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부한 저서생물과 조그마한 갑각류, 패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사라지고 있는 갯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단체와 각급 학교 중심으로 소규모 갯벌 기행과 탐조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생태관광과는 동떨어진 어린이 갯벌캠프 그리고 패류 채집 등이 뒤섞인 갯벌 관광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강화도 갯벌의 관광 붐은 갯벌과 자연 생태계에 상식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갯벌의 자정작용이나 수용력을 상실케 하여 갯벌 생태계의 오염과 훼손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연합이 위탁 받은 강화갯벌센터의 역할은 건전한 갯벌 생태계 보전과 바람직한 생태교육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활동은 강화갯벌센터의 성과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화군과의 관계도 처음보다는 많이 진일보된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민관협력의 모델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겠다.

An example of operating the Ganghwa Tideland Center

Jang Dong Yong
Chief Officer, the Ganghwa Tideland Center of KFEM

I.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

1. Background of Establishment and the Opening Date

- Background_ In 1999, as the Korean Foundation of Environment Movement and the British Embassy in Korea started working seriously together on the marshy preservation project in , they formed a cooperation system with local autonomous entities Incheon City and Ganghwagun, performing a wide range of activities, such as participating in seminars, symposium, visits to the tideland in the UK and Germany. With such achievement, Incheon, Ganghwagun, and the Korean Foundation of Environment Movement held a joint signing ceremony for the project of building a tideland center on the 4th of April in 2001, and established the Ganghwa Tideland Center.
- Center Opening Date : 2005.6.8

2. Management and Funding Plans

1) Subjec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 Subjec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enter:
 - Facility management : Ganghwagun(GO)
 - Operation: The KoreaFound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NGO)

- Type of Operating the Center
 - Operation in cooperation/partnership between the Ganghwa province and the NGO Ganghwagun, the Korea Found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 Collaboration between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in Ganghwagun, the marshy center in the Korea Found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the Ganghwa Tideland Center

2) Goals, Mission, and Vision of the Center

· Goals of the Center

- ① To offer opportunities to promote all the information about tideland and experience the tideland by building a tideland center in Ganghwa province
- ② To set an example of eco-friendly tourism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ors by making good use of the scarcity value and ecological value of tideland.
- ③ To help contribute to the healthy life and economic stability of the residents living near tideland

· Mission of the Center

- ① Revital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by forming ties with the residents (active exchang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eople)
- ② Place of specialized experience and training ab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tideland
- ③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by developing eco-friendly goods relating to tideland and visitors
- ④ Place of the research of tideland and ecological culture from a personal viewpoint and of the development of ecological research programs.

· Vision of the Center

Not only the building itself, the tideland center also includes the neighboring tideland and is also considered a cultural center of eco-friendly tideland research and training, by providing exploration groups in the area

where migratory birds return as well as guided and self-guided types of learning.

- ① Creation of the learning place and an area for migratory birds to return in the neighboring tideland
- ② Installation of ecological education programs about tideland
- ③ Concept of building an educational center building

– The Number of Visitors

· Average monthly visitors: 1,000

· Average annual visitors: 13,000

3) Progress of Project Execution (The Korea Found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 | | |
|----------------|---|
| 1999.7 | the British Embassy gets down to working on the marshy preservation project. |
| 10.13. | The 1 st orientation on the site which is an example of marshy preservation in the U.K (the British Embassy) |
| 12.24. | Government subsidiary secured (Ganghwa office) |
| 2000.2.27 ~ 29 | The Korea-UK marshy preservation symposium is held; visit to the tideland of Korean marshy, Ganghwa. (Hosted by: The Korea Found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the British Embassy / Place: the British Embassy in Korea) |
| 3.15. | Establishment of a project of building a tourism attraction in Ganghwa Southern Tideland (Ganghwa Office) |
| 6.20. | Meeting at Ganghwa Office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Ganghwa Tideland Education Center (Ganghwa Office) |
| 7.14. | Briefing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tideland education center to preserve Ganghwa province tideland (Ganghwa Office) |
| 8.16 ~ 20. | Observation of an example area of marshy preservation and a training center in the UK (Incheon mayor, Ganghwa) |

- province, the head of Ganghwagun,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 Found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and so forth participated)
- 10.~12. Field survey to examine the land for the Ganghwa Tideland Center (several times)
- 2001.2.2~10. The staff from the Ganghwa Tideland Center visits and inspects an example of marshy preservation and the educational center in the UK(Incheon mayor, the chief officer of Ganghwagun, The Korea Found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exerts participated)
- 3.8~14. A British WWT expert visits Korea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Focusing on the field observation and meeting to select the land for the Ganghwa Tideland Center).
- 4.4. Agreement upon a joint project of building the Ganghwa Tideland Center (by Incheon City, Ganghwa Province, the Korean Found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 10.13. Meeting about the preservation of Ganghwa tideland and construction of the tideland center with a German expert from the national tideland park administration office
- 2.~12. Selection of the land for the Ganghwa Tideland Center and meetings about construction (several times)
- 2002.7.30. Field Presentation about the Ganghwa Tideland Center
2003. 1~12. Meetings about the design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 (several times) and preliminary review and discussion abou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 4.1.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5,254m²)
- 5.14. Building permit (Total area: 704.43m², one basement, two floors above the ground, steel-frame structure)
- 11.14. Informal meeting in the area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 (the chief officer of Ganghwagun, Ganghwa non-government organization, the Korea Foundation of

- Environmental Movement, Incheon, the Tideland Center Project Promotion Committee)
- 2004.1.~12. Conferences about building the Ganghwa Tideland Center (several times) – exterior, interior, and landscape, etc)
- 11.~12. Meetings about the prepar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at the Ganghwa Tideland Center (several times)
- 2005.1.~3. Construction of the interior and educational facilities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 establishment of the plan and rules for operating the Ganghwa Tideland Center
5. The Ganghwagun and the Korean Environment Foundation sign a commission contract
6. 8. the Ganghwa Tideland Center opens
- 4) Main Evaluation Issues about Private-Government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building
- In case of building another center like this, it is important to have a subjective entity only for this project in its early stages. There are too many limitations of this one-person system.
 - The project should be carried out after the building design, interior design, educational programs, and an operation plan are duly prepared in a comprehensive, specific way.
 - From the beginning to design, construction, and completion, it is critical to have an official system for as many experts, environmental activists, and residents as possible to participate and discuss

II. Introduction, Operation, and Evaluation of Ganghwa Tideland Center

1. General Descriptions about the Ganghwa Tideland Center

- 1) Main Types of Marshy_ Tideland and estuary tideland
- 2) Overview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
 - Overview of the building
 - Lot Area: 12,873m² (Common facility area: 5,254m²)
 - Building: Total area 704.43m², one basement, 1st and 2nd floors, Steel-frame structure
 - Tideland Area
 - Ganghwa Tideland : 353km²
 - Southern Tideland:(Yeocho-ri - Dongmak-ri -Geomgeom-ri): 90km²
 - Major Facilities
 - Classroom, Laboratories, Exhibition halls, Library, Observatory rooms, Sightseeing Course, Parking lot
 - Main Exhibits_ Models of Ganghwa Southern tideland, black-faced spoonbill, tideland diorama, and Korean shellfish exhibits
- 3) Flagship Species and Characteristics of Center Education
 - Birds: black-faced spoonbill sand yellow-beaked egrets
 - Tideland creatures: Clam, crab
 - Main Characteristics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 (Ganghwa Southern tideland) Different from Other Areas
 - Typical tideland located at the mouth of the Han River, the most natural tideland among those existing at the mouth of the river, with groups of benthos, a variety of small ecosystems, multiple sorts of creatures.
 - East Asia for aquatic birds: Located on a path to Australia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one of the habitats for snipe or plovers, the wading birds, to get sources of energy for breeding and wintering.
 - Habitat, stopover, and the place for wintering for cranes, yellow-beaked egrets, and black-faced spoonbills, which are in danger of extinction and under international protection
2. Philosophy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 "Education and Activiti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to Preserve Marshy (CEPA activity)

Tideland is for every creature including plants, animals, and human beings. It has a wide variety of sea creatures, flying, swimming, or walking sideways, which all attract a number of birds. Such tideland ecosystem provides itself as a place for human beings to come together and become at one with nature. To convey ecological, educational, economic, and social functions of tideland, it is essential to build a place for more systematic education. This not only indicates official facilities but also a new type of a tideland center which can teach the entire nature in tideland in an organized way.

3. Educational Programs and Main Exhibitions

- 1) Basic Guide Programs
 - Creatures and birds in Ganghwa Tideland: Video materials
 - Ecology of black-faced spoonbills: Models and the display board
 - Tideland type: Display board
 - Ecology of tideland: Aquarium, outdoor observation, display board
- 2) Main Recognition Program Target
 - Infants, Youths
- 3) Exhibit Replacement Cycle
 - Irregular (Not Frequently)
 - Replace with educational achievements
- 4) Programs for Schools and Universities
 - : The center offers 3-hour and 6-hour programs and two-day/one-night program
- 5) Expert/Advanced Programs

: With the Marshy Center of the Environment Association, the center has begun an ecology school about black-faced spoonbills and a tideland guide program for the residents in 2007.

6) Personnel Organization

- Full-time Employees: 5 (2 for general administration, 2 for the Environment Association, 1 for information desk)
- Resource Activity Group: 9 people from Ganghwa Non-government Organization Volunteer Group, 34 people from Ganghwa Culture Interpretation Group 30 "Tideland School" students
- Partner Groups: Marshy Committee of the Environment Association, Marshy Center of the Environment Association, and Ganghwa NGO

4. Evaluation of Private-Government Cooperation in Terms of Commission Operation · Public evaluation of cooperation

1) The agreement specifies the lack of the discussion system between the administrative entity (Ganghwagun) and the environment association, problems with commission, and the formation of the project promotion committee to establish the the Ganghwa Tideland Center. Until the opening of the center, a few people in charge of practical work held meetings on an irregular basis, but there was still 불신 because of a few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the minutes by the Ganghwa province staff in charge or non-fulfillment of the plan.

Even after the Ganghwa Tideland Center was open, there are still a few official issues left because of the absence of meetings and decision-making system to discuss the practical management of the center according to the rules, such as the formation of the operation committee or the practical operation committee.

Furthermore, the agreement says that, as the Ganghwa Tideland Center opens, every part of the work shall be commissioned to the Environment

Association. Unfortunately, however, the association has not reviewed it carefully yet and thus were entrusted to programs and training only.

Including

- No regular meetings
- Frequent replacement of civil servants in charge
- Absence of discussions about the budget related to the center operation
- the Ganghwa Tideland Center in terms of profits
- No financial support for the center operation

2) Lack of functions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Environment Association and the Ganghwa Tideland Center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the initial determination and status of the central environment association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Ganghwa Tideland Center. (Practically, the status of the staff in charge and the tideland center)

Even before the opening of the center, none of in-depth reviews or discussions were carried out in different aspects on the level of the central execution committee, related committees, and central practical affairs committee of the central environment association. It was a big mistake that only one person was in charge of everything.

This directly links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 caused by the center itself failing to remind all the central staff in charge and committee members of the importance of the center

For example, the entire environment association should have held concrete discussions about an issue about 15% of the contribution stated in the building contract and how they should have prepared and supported it. The evaluation reveals that, since the opening of the center, the staff assigned to the center has not been able to operate smoothly for many reasons like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practical conflicts with

the Ganghwa province after signing the contract, restrictions on activity conditions, and limited movements, which also caused the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association to fail to be independent and organized.

3) Problems with Working as a Member of the Environment Association of the Ganghwa Tideland Center

Aside from the aforementioned reasons, there are too many restrictions in terms of activity and time and the working conditions are too bad for an activist to do more than simple office work.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activists cannot do their own job only because of bad working conditions, even with 10 years of experience at the environment association. Their incapability might have come from a lot of practical and personal reasons of the Ganghwa province, the central environment association, and the Ganghwa Tideland Center.

III. Conclusion

The controversy over the value and roles of tideland has brought national attention to coastal ecosystem, attracting more and more visitors to the tideland areas every year. Despite such positive attention, excessive human invasion on the tideland continuously destroys the coastal ecosystem, which have remain natural for thousands years. Further, it has ruined the functions of the ecosystem.

In many cases, the ecosystem is threatened with destruction, especially in crowded areas, because of the lack of nationa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For example, Janghwari tideland in Ganghwa used to have a lot of benthos, crustaceans and shellfish a few years ago, so it has small tourist groups traveling to the tideland and doing exploration work, center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schools. However, only a couple years ago, there was a movement of developing the area into tourism resource, degrading it to a mere tourism spot for children tideland camps and shellfish collections, far from ecological experience.

Such trend of visiting the Ganghwa tideland certainly brought a lot of people without much knowledge about tideland and natural ecosystem, who took away its self-purification and carrying capacity from the tideland and eventually polluted and damaged the tideland ecosystem.

Considering such reality, the roles that the Ganghwa Tideland Center commissioned to the Environment Association can be a solution to preserve the tideland ecosystem and conduct desired ecological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Ganghwa Tideland Center will be able to achieve its own goals and meaning of existence by developing and performing a variety of programs.

Also, the controversial relationship with the Ganghwa province is now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partnership. This will set an example of private-government cooperation in a positive way.

▶ **[워크숍스케치] “환경교육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2007년 12월 4일 (사)환경교육센터와 환경연합 환경교육네트워크 주최로, “2007 아시아 시민환경교육 : 만남과 연대” 국제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의 세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환경교육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진행은 최석진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소장님께서 해주셨다.

먼저 차수철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주제발표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환경교육현황과 환경교육센터의 현재 역할과 업무, 활동사항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차수철 운영위원장님의 발표의 간단한 내용이다.

차수철: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교육센터는 2002년도부터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건립되고 있다. 향후 3년 이내에 센터 건립비용이 1조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투자 토지 단체 등에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와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 중심으로 활성화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운영자의 인식과 재정지원의 제한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고 학문부분에서도 우수 사례 등의 정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시기상으로는 센터의 건립과 재원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교육센터는 어느 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건립되고 운영되기 어렵다. 환경교육은 특히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관의 협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교육 사례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민관 협력의 사례로 일본 Ogawa, LEAF 사무국장님 (니시노미야시 환경학습도시)의 발표로 이어졌다.

Ogawa: 니시노미야시는 마을 만들기를 통한 생태체험 아이들의 환경체험과 세계 어린이들의 교류 등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니시노미야시는 행정과 기업이 함께하고 있고 강과 바다에 둘러 쌓여있는 지형으로 산지역에는 환경거점 시설로 자연체험 센터가 있고 강변, 해변지역에도 각 센터가 있다. 이 시설은 환경체험이 가능하다. 전 지역에 걸쳐 그 자연의 상태에 맞는 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시는 전쟁 후 마을 만들기를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시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환경 만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단순한 환경학습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연계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이것이 지역사회에서의 에코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준다면 환경카드를 나눠주고 도시의 전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사회, 가정, 학교가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 이것의 연결 문제가 리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스탬프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과 지역 마을 사람들이 도장을 가지고서 잘 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등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각 학년 별로 과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6학년의 경우 인권과 평화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 모두가 환경교육이라고 보고 운영하고 있다. 기업과 관련 30여개의 업체가 맥주, 음식, 의류 등 각 분과가 기업과 환경활동을 연결하여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에 들어가서 병을 만드는 회사가 설명을 하고 기업의 분들이 각 학교에 가서 환경교육을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자신들도 환경마인드가 고양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환경 교육은 사회 질과 교육 등이 모두 함께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니시노미야시는 이런 연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강화갯벌센터의 장동용 사무국장님의 발표이다.

장동용: 강화갯벌센터는 1999년 환경운동연합과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습지보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의 지자체인 인천시, 강화군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 세미나, 심포지엄, 영국, 독일의 갯벌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설 관리는 강화군이 운영은 99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최대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상주 활동가들의 근무 상황의 열악한 면을 지역주민의 자원활동가 양성으로 수급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순환근무체제로 15명 정도가 갯벌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 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이런 성격의 특수교육센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전체적으로 초기의 운영부터 민과 관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점차 강화군과의 관계도 처음 보다는 많이 진일보된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민관협력의 모델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워크숍을 통해 살펴본 환경교육에서의 민관협력의 결론은 이미 도출되어져 있다고 느껴진다. 그 어떤 분야의 교육보다도 환경의 교육적 효과는 특히 민관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지고 (갯벌센터) 도시 전체에서 진행되는 교육 시스템(일본 니시노미야시)의 사례를 통해 더욱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리 : 강운화 님 (환경교육센터 활동가, luna@kfem.or.kr)

[Session2] [국내 지역별 사례발표] 환경교육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For the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Asia)

_ 지역별 사례발표 및 민관협력방안 토론



Part I . 거점형 사례

- [사례1] 광덕산환경교육센터_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차수철 ... 83쪽
- [사례2] 남이섬환경학교_ (사)환경교육센터 · 민여경 ... 97쪽
- [사례3] 도봉환경교실_ (사)환경교육센터 · 김동현 ... 108쪽
- [사례4] 여수환경교육센터 및 어린이도서관_ 여수환경연합 · 강홍순 ... 113쪽

Part II . 프로그램형 사례

- [사례5] 충북환경교육센터_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김경중 ... 120쪽
- [사례6] 제주환경교육센터_ 제주환경운동연합 · 양수남 ... 125쪽
- [사례7] 대전환경교육센터_ 대전환경운동연합 · 고은아 ... 138쪽
- [사례8] (사)환경교육센터_ (사)환경교육센터 · 장미정 ... 144쪽